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아픔을 아십니까

데니얼 루프톤/ 케노사바이블교회 목사

“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런 곳일 거야.” 브레트는 예배 후 그의 아내 줄리와 그들의 친구인 매트, 그리고 리사와 함께 교회의 로비에 앉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좋은 친구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편안히 앉아 있을 수 있으니 말이야.”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이기만 하였다.

1년이 지난 뒤, 줄리와 브레트는 그 교회를 떠났다. 나중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들은 교우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고, 친해지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교회를 찾아 떠나 버렸다.

이 짧은 이야기는 교회의 구성원을 묶어 주는 '유대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유대감이라는 것이 또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지를 잘 보여준다. 상담가이자 저술가인 레리 크랩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다양한 필요를 채워 줄 프로그램은 소유하고 있는 교회라 하더라도, 구성원들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오늘 활발한 교회라 하더라도 내일은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공동체'라 부른다. 소속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라 부르기도 한다. 교회 안에서 그것이 행해지는 것을 봄으로써 우리는 그것의 존재를 알게 되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찾기 힘들어 질 때 그것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주일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두고 있는 제프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교회에 나온 지 첫 몇 주 내에 이미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돌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몇 번의 방문으로도 기존 교인들 간에는 서로 친해 보였지만 새신자에게는 누구도 진정한 관심을 쏟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을 건넨 사람이 거의 없었을 정도였으니까요. 말을 건넨다 해도 상투적인 내용이었고, 우리가 먼저 말을 꺼내어도 진솔하게 대화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같은 또래 아이들에게 접근해 봤지만 교회 내에서 친구를 사귀는 데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매주일 그 교회에 나가는 것이 싫어지고, 예배를 빠지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적합한 다른 교회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약성경의 초대 교회와 같은 이상적인 교회의 상을 꿈꾼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고, 아무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며, 성도들이 진실하고 자발적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를 바란다. 오늘날로 치자면,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거리감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친구가 되고, 휴일을 함께 즐길 수 있으며, 집안의 작은 연장까지도 서로 나누어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이와 노인이 모두 소중하게 여겨지는 교회를 소망하는 것이다.

외로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이상적인 교회를 찾기란 쉽지 않다. 하버드대학 로버트 퍼트남 교수는 *Bowling Alone*(미식축구 경기를 혼자서 관람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라는 책을 썼다. 이 책의 제목은 우리 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개인주의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몇 십 년 전만 해도 미식축구 경기를 함께 시청하는 모임들을 흔하게 찾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모임들이 참석숫자의 부족으로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임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일전에 갤럽은 미국인들을

“지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우리 이웃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다. “미식축구 결승전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에서 혼자 그 경기를 관전할 것이 뻔합니다. 꼭 닫힌 문 뒤에서 모두가 똑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옆 집 사람에게 우리 집에 와서 스낵이나 먹으면서 같이 경기를 즐기자고 제안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든 일입니까?” 세상이 차갑고 무관심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교회는 반드시 달라야 한다고 기대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교회는 그에게 속해 있다. 그러므로 교회도 우리를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가정과 같은 교회를 만들 수는 없을까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일전에 어느 한 교회에 초청 강사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동안, 리와 도로시라는 부부의 집으로 초대를 받은 적이 있다. 그 교회의 따뜻한 분위기는 이 전에 내가 맛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육십 대의 노인이었던 도로시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돌보는 일에 놀라울 정도로 능숙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 가족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했다.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 한번도 확신을 가져 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에게 가족의 역할을 대신해 준 곳이 바로 교회였다.

프라이다의 경험은 또 다르다. 그녀는 결혼의 위기를 맞이하고서 외롭고 괴로운 한 때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화를 했는데, 그녀는 나의 관심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여겼다. 프라이다는 교회의 다른 누구도 자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전화를 하거나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 말은 어느 야구팬의 자동차 스티커를 생각나게 했다. “나는 시카고 컵스를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작은 글씨로 다음과 같은 글귀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나는 우승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곳에서 가족과 같은 분위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가족이라는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주셨다. 십자가의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 아래를 내려다보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요 19:26-27).

가족. 가정. 받아들여짐...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 이 말들의 의미를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엡 2:19-20).

사랑은 선택과 결단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식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더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내 집 같은 교회’라면 반드시 따뜻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 들여주는 교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회는 다른 곳 보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더 많이 보여 주어야 한다고 기대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쁘다.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먼저

건네기 마련이다. 항상 당신을 예배 후에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할 것을 마음에 두고 있지도 않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사람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로 부터 사랑과 관심을 기대하는 한 여전히 힘든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다. 훌륭한 주일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보였는지로 판단되기가 심상이다. '어제는 아주 힘든 주일이였다. 설교도 좋았고, 예배도 나를 회복시켜 주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다가가기에는 매우 힘든 주일이였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책임은 교회의 리더들과 개개인들 모두에게 있다.

많은 교회들이 소속감이나 애정이 자동적으로 생겨난다고 착각한다. 로스엔젤레스의 Mosaic Church 어윈 맥마누스 목사는 "인간은 무언인가 믿기를 원하고, 무엇인가 되기를 원하고, 어디엔가 소속되어지기를 갈망한다"고 얘기했다. 많은 교회들이 설교와 성경공부를 통해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일에는 효과적이다. 또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무엇이 되도록 돕는 일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을 받아들이고, 양육하고, 돌보며, 소속감을 가지게 하는 일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당신의 교회를 처음 찾은 새신자들의 패턴이 혹시 다음과 같지는 않는가? 교회를 처음 출석했을 때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 그들은 목사와 교제의 악수를 나누고, 목사의 관심을 받는다. 몇 명의 집사들에 의해 심방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는 '이 교회야말로 내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교회겠구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는 기다린다. 육 개월이 지나도 더 이상의 것이 뒤따르지 않는다. 새신자들은 계속해서 출석한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음 단계를 시도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은 외로움을 느끼고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느낀다. 그리고 이 교회가 내 교회인지 의아해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아주 가까운 가족 관계 내에서도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수고를 필요로 한다. 사랑은 선택과 결단인 것이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가족과 같은 따뜻한 교회의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새신자들은 물이 빠지듯 사라지고 말 것이다.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향한 비전을 품어라

나는 일전 우리 교회에서 3주 연속으로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하고는 그 결과에 위기감을 가진 적이 있었다.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소그룹에 대해 질문해 보았다. 700명에서 1,000명 사이의 성도들이 응답한 이 조사에 겨우 200명 정도만이 교회 내의 다양한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 가운데 500명 정도는 예배가 마치는 즉시 교회를 빠져나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여름 흩어져 있던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나는 그것이 단순히 하나의 큰 그룹이 아니라 가족 내에 있는 여러 소그룹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가 모였을 때, 그것은 여러 소그룹들의 집합이다.

소그룹들이 있기는 하나 그것들이 교회라는 큰 가족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교회는 성도들에게 그 그룹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힘들다. 반면 여러 그룹들의 집합으로서의 교회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소그룹을 통해 그 일을 성취한다. 우리 교회의 성가대가 그 좋은 예다. 우리 성가대는 모든 교회들이 성가대를 포기할 때에도 계속 60, 70명의 대원들을 유지하며 계속 발전해 왔다.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성가대가 모든 성가대원들의 모임, 즉 그들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는 한 성도들이 여러 다양한 소그룹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짝기

도 그룹에서부터 시작해서, 소그룹 성경공부 그룹, 그리고 여러 사역팀에 성도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물론 이것이 쉽지만은 않다. 사람들은 소속감을 얻고 싶어 하는 동시에 어디엔가 참여하여 헌신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경향은 짙다. 목사로서 사람들이 교회의 모임에 무관심한 것에 대해 불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문화 속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이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내 집 같은 교회의 비전을 계속 제시해야 하고, 그러한 비전이 성취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것은 하나의 사역팀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특정한 지역의 몇 가정이 모이는 구역모임이나 주일 성경공부 모임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와도 교회라는 큰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내 집 같은 분위기의 교회를 위한 구조를 만드는 것과 실제로 그 속에서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가지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어느 독신 여성이 내게 말했다. “우리 교회는 매우 따뜻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중에 교우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와도 가깝게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모여 함께 일을 함으로써 같이 울고 웃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형성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인간관계는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면 절대로 기대하기 힘들다. 나는 우리 교회의 한 여자 성도에게 여자 교우들을 위한 저녁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하기를 권한 적이 있다. 그녀의 정직한 대답은 이랬다. “지금 제게 그것은 또 하나의 일에 지나지 않아 보이네요.” 나는 그녀의 대답을 존중한다. 그러나 아직 그녀를 포기하지는 않았다.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분별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친구란 반드시 같은 또래나 비슷한 생활환경에 있는 사람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정된 사고의 틀을 깨어야 할 필요도 있다. 이 글의 서두에서 언급했던 제프 부부가 경험했듯이 새신자들에게 불친절하거나 차가운 교회들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새로운 신자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돌보기를 원하고 있다. 제프는 그의 아들이 또래 모임에 처음 참석했을 때, 그가 마침내 집에 온 듯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십대 아이들이 체육관에서 농구를 하고 있는 동안 우리 애는 사이드라인 밖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교회도 다른 교회와 별 다를 바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그때 한 아이가 경기 중에 내 아이에게로 걸어오더니 웃으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농구하지 않을래?’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모든 것이 잘 해결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니얼 루프톤(J. Daniel Lupton)/ 케노사바이블교회(Kenosha Bible Church)의 목사이자 상담가이다. 이다. 이 글의 일부는 그의 책 *"I Like Church, But..."*에서 가져온 것이다. E. C. Newenhuyse는 *Moody*의 편집장이다.)

☞ 이 글은 “신학이 있는 목회, 목회를 위한 신학”을 추구하는 목회전문 베스트 메거진 [목회와신학] 2003년 2월호 262-266쪽에 실린 것으로서, [목회와신학]의 허락을 받아 게재합니다. <http://durano.com/moksin>